

배포 일시	2022. 10. 5.(수)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	책임자	팀 장	김수정 (044-201-4370)
		담당자	사무관	권시홍 (044-201-4371)
	외교부 국제법규과	담당자	사무관	하후호 (044-201-4251)
		책임자	과 장	정소현 (02-2100-7530)
		담당자	사무관	박영찬 (02-2100-7839)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8연임 성공 - 제41차 총회서 이사국(파트3) 선출... 항공강국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외교부(장관 박진)는 우리나라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고 있는 제41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에서 이사국에 선출되어, 향후 3년간 8번째 임기를 수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10월4일 14:00(현지시간) 치러진 이사국(파트3) 선거에서 대한민국은 투표에 참여한 175개 국가 중 총 151표를 얻어 이사국 연임에 성공함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ICAO 회원국들의 신뢰와 항공강국으로서 우리 위상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 * 파트3 이사국 당선국: UAE(161표), 카타르(160표), 에티오피아(154표), **대한민국(151표)**, 가나(150표), 자메이카(149표), 짐바브웨(148표), 칠레(146표), 적도기니(145표), 모리타니아(143표), 볼리비아(138표), 루마니아(138표), 말레이시아(136표), 엘살바도르(132표)
 - ** 역대 대한민국 득표수: '01년 109표, '04년 125표, '07년 124표, '10년 141표, '13년 156표, '16년 146표, '19년 164표
-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사국 연임을 위한 전방위 활동(항공 관련 국제회의 참석 및 개최*, 전 재외공관을 통한 지지교섭)을 전개하였다.

* 중남미 민간항공위원회 총회('22.3,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참석, 제57차 아태항공청장회의 및 2022년 국제항공협력컨퍼런스('22.7, 인천) 개최 등

○ 특히, 국토교통부, 외교부 등 정부기관과 공항공사, 항공사 등 항공 관련 기관들로 구성된 **민관대표단(수석대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몬트리올에 **파견하여 면담 또는 각종 리셉션** 계기에 각 회원국 대표들과 일일이 접촉하는 등 **마지막 순간까지 지지교섭 활동을 펼쳤다.**

○ 또한, 선거 전날인 10월3일 저녁, **우리나라가 단독 개최한 ‘한국의 밤’ 리셉션**에는 수많은 대표단들이 참석하여 국제민항분야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담은 **홍보 영상**을 감상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준비한 우리의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어우러진 공연**을 다 같이 즐기는 등 우리의 **이사국 연임 당위성을 확인하는 자리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 ICAO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민항분야의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유엔전문기구이며, 우리나라는 1952년 가입하였다.

○ ICAO는 항공기 제조, 운송, 관제 등 전 국제민항분야 관련 정책 및 국제기준을 결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특히, ICAO 이사회는 매 3년마다 열리는 총회에서 당선된 36개 이사국 대표로 구성되며, 총회에서 결정된 **항공정책의 집행을 결정·감독**하고 항공분야 국제기준의 **제·개정안 채택**, 국제 항공분쟁 **중재·조정** 등 입법·사법·행정권한을 갖는 ICAO의 실질적 의사결정 기구이다.

※ ICAO 이사회는 파트1(주요 항공국) 파트2(주요 항행시설기여국), 파트3(지리적 대표국)로 나누어 선출되나, 선출 이후에는 파트에 따른 구분 없이 활동한다.

□ 우리나라는 2001년 처음 이사국에 선출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항공분야 무상교육훈련 실시, 우리나라 전문가의

ICAO 사무국 파견, 안전관리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등 이사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향후 ICAO의 행정 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한 디지털전환사업에도 참여하기로 하였다.

- 이번 ICAO 이사국 8연임을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민항분야 발전에 기여한 것에 대한 회원국들의 인정과 신뢰를 재확인할 수 있었으며,
-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항공안전 및 보안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항공분야 탈탄소, 첨단항공기술 관련 국제기준 마련 등 ICAO 차원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국제민항 발전을 선도하고 국제민항분야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장관님 연설문(국문본)

존경하는 포피코자 제41차 ICAO 총회 의장님, 야키타노 ICAO 이사회 의장님, 살라자르 ICAO 사무총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회원국 대표단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41차 ICAO 총회에서 연설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이번 총회를 준비해주신 ICAO 사무국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공은 국가와 국가 간의 경계를 허물고 도시 간의 거리를 줄이며,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수단입니다. 또한, 서로의 문화를 주고받으면서 지구촌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민간항공의 안전과 발전의 중심에는 세계 각국의 긴밀한 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ICAO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로 대한민국은 ICAO와 함께한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지난 1952년 ICAO에 가입한 이후,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며 항공운송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괄목할만한 성장은 ICAO와 193개 회원국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ICAO의 역할과 중요성을 직접 경험했기에 대한민국은 ICAO의 이니셔티브 가치인 'No Country Left Behind Initiative'에 깊이 공감하며 그 가치와 원칙을 지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ICAO와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더 많은 나라와 함께 꾸준히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2001년부터 개도국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ICAO 항공전문인력 교육 사업과 2020년부터 새롭게 시작한 석사학위 장학사업을 계속 지원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ICAO와 지역민항위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맞춤형 교육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한국은 국제항공사회의 발전을 위해 조직을 더 현대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ICAO의 전환목표(transformation objective)를 지지하며, 디지털

전환기금(Digital Transformation Fund)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60만 불을 보태어 ICAO의 혁신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아낌없는 노력이 ICAO와 회원국 모두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항공에 있어 안전과 보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안전한 항공서비스 제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ICAO의 안전관리 정책과 표준 제정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전 세계의 항공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국제항공 탄소감축 장기목표(LTAG*)와 탄소상쇄제도(CORSIA**) 등 글로벌 환경이슈에 대해 우리 모두의 가치와 노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 (LTAG) Long Term Aspiration Goal

** (CORSIA) 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

기후변화 대응 전략은 지구와 인류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사안으로 이미 공인된 탄소감축 방안들을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즉각 적용이 가능한 항공기 운영 측면의 탄소감축 수단을 실천하고 있으며, 여기에 친환경 연료, 전기·수소 항공기와 같은 미래 혁신 기술을 더하여 항공 분야의 탈탄소를 완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한 범지구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경제적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항공 탈탄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항공미래가 10년 후, 나아가 100년 후에도 깨끗하고 안전한 산업으로 나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ICAO 회원국 대표단 여러분! 국제항공 네트워크의 핵심은 '연결'입니다.

하늘길을 이어주는 것, 누군가에게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은 '신뢰'이며, 함께 더불어 살아감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신뢰'와 '약속'을 바탕으로, ICAO의 이사국으로서 다시 한번 국제 민간항공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회원국 여러분의 대한민국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총회 의장님, ICAO 이사회 의장님과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ICAO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41차 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